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의 분노와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 그리고 대처방식을 탐구하여 피해여성의 재활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477명의 여대생이고, 그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9세($M=20.59$, $SD=1.44$)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Straus의 갈등척략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Eysenck 성격검사 및 다차원 대처척도이다. 분석 결과,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높았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았으며 분노통제 수준은 낮았다. 공격적 피해자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도 강했다. 한편 공격적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잊어버리고 체념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는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종교적 추구 성향이 강했다. 연구자는 이런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 대처

[†] 교신저자 :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E-mail : khsuh@syu.ac.kr, Tel : 02) 3399-1676

사춘기를 지난 여성은 이상적인 이성상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걸맞은 상대를 찾아 로맨틱한 데이트를 꿈꾸지만 현실에서의 이성 관계가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여성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데이트 도중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 서로 간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책략을 사용한다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로맨틱해 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경우가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Levy, 1990).

연인 혹은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만성적이고 폭력의 강도가 점차로 심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미 연방 수사국(FBI, 2000)은 살해당하는 여성의 약 1/3가량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신체적 상해 외에도 데이트 도중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후유증도 오래간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남성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할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기도 한다(Levy, 1990).

한국인에게 데이트 폭력은 아직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2007년 초 신혼여행 후 폭행을 당해 파경에 이른 한 연예인이 결혼 전부

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짝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세간이 주목했지만 아직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은 서양에서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무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이런 데이트 폭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서경현, 2002; 서경현, 2004;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안귀여루, 2007;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안귀여루, 2001). 김정란(1999)의 조사에서는 대상자들의 50% 이상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비율에는 언어폭력은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데이트 폭력에 언어폭력까지 포함시키면 그 비율이 90%에 이른다(김정란, 1999; Neufeld, Mcnamara, & Ertl, 1999). 연구자도 언어폭력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는 데이트 폭력에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서양에서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던진 것이나 상대방을 때밀거나 찌른 것도 신체적 공격 혹은 폭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행동이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방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그런 신체적 공격 행위도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세간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 관련변인들이 많이 탐구되어 온 반면에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서양의 경우도 데이트 폭력 관련변인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 더러(Charkow & Nelson, 2000),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의 양상은 다르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보다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혹은 효과검증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성에 관해 몇몇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특성을 탐구하였다. 그런 연구들(Crandall, Nathens, Kernic, Holt, & Rivara, 2004; Heise & Garcia-Moreno, 2002; Howard & Wang, 2003; Ramisetty-Mikler, Goebert, Nishimura, & Caetano, 2006; Tjaden & Thoennes, 2000)의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 낮은 연령,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 상대보다 높은 여성의 학력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 폭력에 노출된 지역사회 거주, 정통적인 성역할 기준 등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에는 순수한 피해자(victims only)도 있지만 피해를 유발하는

신체적 공격을 먼저 한 경우도 있다. 그런 피해자를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라고 한다. 다른 유형의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공격적 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들부터의 폭행을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는 공격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여러 상황에서 분노 표출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종효, Essex, 2002; Craig, Pepler, Connolly, & Henderson, 2001; Felix & McMahon, 2006; Schwartz, Dodge, & Coie, 1993). 또한, 공격적 피해자가 순수 피해자보다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경향이 크다(Schwartz, 2000).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공격적 피해자가 주위사람들에게는 정당한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Witte, Schroeder, & Lohr, 2006)에서 같은 수준의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순수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보다 공격적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경현, 안귀여루, 2007)는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개입하는 방식을 검증하였는데,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더 높았으나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공격적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으며 데이트 폭력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의외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보고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만을 보고한 여성들을 순수 피해여성으로

간주하였다.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한 경우 먼저 데이트 폭력을 가해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자는 공격적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고 순수피해자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한편 데이트 폭력과 분노나 분노표현 간의 관계가 몇몇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데이트 폭력을 더 자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며 (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Dye와 Eckhardt(2000)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특성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를 더 쉽게 표출하며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분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성친구를 사귀려는 욕구가 강하여 데이트를 더 자주 한다고 한다(Silver, Field, Sandra, & Diego, 2000).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를 더 표출하면 데이트 도중 상대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서경현, 2002).

주목해야 할 것은 특성분노가 데이트 폭력 피해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경현과 이경순(2002)의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와 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에 먼저 공격 행위를 한 후 물리적 충돌을 경험한 여성, 즉 데이트 폭력을 가해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저항을 경험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격적

인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난 연구(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도 이런 추론을 지지한다. 언어적 공격이 아닌 신체적 공격을 먼저 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되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연구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보고한 여성 중에 먼저 신체적으로 가해행동을 한 공격적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나 순수 피해자보다 분노 수준이 높고 분노표현도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은 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Swanson et al., 1997).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으며(Gavazzi, Julian, & McKenry, 1996; Malamuth, 1986),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강제적인 성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Murphy, Coleman, & Haynes, 1986). 또한 정신병적 경향성이 학대받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는 주장(Vitanzo, Vogel, & Marshall, 1995)도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력 피해와 정신병적 경향성 간의 관계가 매번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Farnham, James, & Cantrell, 2000),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로 구분하여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중독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된 연구들이 있었고(Henton et al., 1983; Nicarty, 1991; Norwood, 1985; Pearson, 1991), 최근에 Charkow

와 Nelson(2000)은 의존 성향을 주요 변인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를 증명했으나 그 관계가 몇몇의 연구에서 복잡하게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가 그런 관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할지 모른다. 중독성이 강한 여성은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Pearson, 1991).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중독성이 강하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서경현, 이경순, 2002).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연구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의 중독성이 강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데이트 폭력 전문가들은 데이트 상대가 공격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 기미가 보일 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한다(Levy, 1990). 데이트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혹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은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이상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폭력의 관계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도움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Gondolf, Fisher, & McFerron, 1990), Gondolf(2002)은 이것이 다양한 대처방식과 상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처방식은 문제중심적(problem-focused) 혹은 정서중심적(emotion-focused)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스트레스원을 변경하려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매우 과제중심적(task-oriented)이고, 후자는 스트레스원에 변화를 주기보다 그것과 관련된

감정에 변화를 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Lazarus, 1993). 이런 대처방식들이 어떤 형태의 도움을 찾는지는 물론이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의 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Shannon, Logan, Cole, & Medley, 2006).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공격적 피해자가 불안 혹은 우울 수준이 낮다고 한다(Holt & Espelage, 2007). 효과적인 대처방식이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Carlson, 1997; Sullivan & Bybee, 1999). 연구자는 대처방식에 있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런 차이는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 후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성향과 대처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대생 중에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 그리고 대처방식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여성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추후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세 대학의

여대생 47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687명의 여대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92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이성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불완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118명의 경우데이트 폭력 가해만을 보고하여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29세였으며, 연령 평균은 20.59($SD=1.44$)세였다. 대상자들이 사귀어 온 평균 상대 수는 3.34($SD=3.60$)명이었으며, 268명(56.2%)의 대상자가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험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으나, 설문을 모두 작성한 후 연구자 보조원이 참여자에게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했는지를 묻고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했는지를 준비된 응답 란에 그것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한 경우 누가 먼저 신체적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만 공격적 피해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은 상대방으로부터 가해를 당하였지만 먼저 공격행동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데이트 피해와 가해 행동을 모두 하였으나 남자친구로부터 공격행동을 먼저 당하였다면 가해 행동이 정당방위나 그 행동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보아 순수 피해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χ^2 검증)과 t검증,

변량분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

갈등책략척도

데이트 폭력 피해 및 가해 피해 여부와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서경현(2001)에 의해 변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를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과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책략을 포함한 각 10문항씩만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사람을 향해)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피해가 .84,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6이었다.

분노 및 분노표현 척도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1997)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Spielberg(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분노(10 문항)와 특성분노(10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억제(8 문항), 분노표출(8 문항) 및 분노통제(8 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하위척도는 사용하지 않았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 척도(분노억제, 분노 표출, 및 분노 통제)는 빈도로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1-‘거의 전혀 아니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그리고 4-‘거의 언제나 그렇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의 Cronbach alpha값은 각각 특성분노 .85, 분노억제 .78, 분노표출 .82 분노통제 .80을 나타냈다.

Eysenck 성격검사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수(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Eysenck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Eysenck 성격검사는 6가지 하위영역(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중독성, 범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과 중독성(Addiction)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란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한 성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정신병자나 정신병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 척도의 하위영역인 중독성이 강한 사람은 위기의식이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각 문항은 진위형이고, 정신병적 경향성은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독성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 17개의 문항 중에 4문항은 ‘예’에, 13문항은 ‘아니오’에 답하면 정신병적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채점되며, 중독성 19개의 문항 중에 17문항은 ‘예’에, 2문항은 ‘아니오’에 답하면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값은 각각 정신병적 경향성 .73, 중독성 .82로 나타났다.

다차원 대처 척도

대상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대처 척도(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대처 척도는 개인적 대처 차원 열(10) 가지, 사회적 대처 차원 두(2) 가지, 및 종교적 대처 차원 한(1) 가지를 포함하는 1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대처 차원은 적극적 대처(3 문항), 정서 표출(4 문항), 적극적 망각(4 문항), 자제(2 문항), 고집(4 문항), 긍정적 해석(4 문항), 양보 혹은 동화(3 문항), 체념(3 문항), 자기 비판(4 문항), 정서적 진정(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대처 차원은 긍정적 비교(4 문항), 정서적 지원 추구(4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 대처 차원인 종교적 추구(4 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대처방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0-‘전혀 그렇지 않다’, 1-‘조금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전경구 등(1994)에 의하면 본 척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다.

결 과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

이번 조사에서 데이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595명 중 215명(36.1%)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중 119명(20.0%)은 자신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다고 보고하여 공격적 피해자로 구분되었으며 96명(16.1%)이 상대가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거나 상대만 신체적 공격을 했다고 보고하여 순수 피해자로 구분되었다.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여성의 피해 수준이 순수 피해여성의 피해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순수 피해자의 그것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3) = 2.10, p < .05$. 순수 피해자가 공격적 피해자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피해자와 순수 피해자 간에 피해 수준의 차이가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도 나타나는지 문항별로 분석해 보았고, 그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문항의 평정점수가 모수가 아니고 그 점수를 변환한 것도 아니기에 변량분석의 결과는 이를 감안하여 이해해야 하고, 성폭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 하나에 응답한 비율이 0%인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에서 도출된 χ^2 값의 신빙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분석 결과, 순수 피해자가 공격적 피해자보다 무언가를 던지거나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한 경험을 많이 하고, 때밀거나 잡거나 찌르는 행위는 공격적 피해자가 순수 피해자보다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피해자 중에 14.6%(14명)이 데이트 상대로부터 몽둥이 등으로 맞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 중에는 단지 2.5%(3명)만이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i^2(1, N=215) = 10.62, p < .01$. 이런 차이는 성폭력 피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데이트 도중 상대가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을 12.6%의 공격적 피해자가 보고한 것에 반해 29.2%의 순수 피해자가 그런 경험을 보고했다, $\chi^2(1, N=215) = 9.11, p < .01$.

표 1.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수준의 차이

종속변인	피해자 분류	순수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	t
		(n = 96)	(n = 119)	
		M(SD)	M(SD)	
데이트 폭력 피해 수준		4.34(5.01)	3.22(2.72)	2.10*

* $p < .05$.

표 2.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피해 유형의 차이

폭력 유형(문항)	피해자 분류	순수 피해자 (n = 96)		공격적 피해자 (n = 119)		χ^2	F
		%	M(SD)	%	M(SD)		
나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42.7	.57(.74)	12.6	.13(.37)	25.00***	32.31***
떠밀거나 잡거나 찢렸다		62.5	.99(1.01)	71.4	1.29(1.12)	1.93	4.05*
손바닥으로 때렸다		33.3	.66(1.13)	42.9	.86(1.26)	2.03	1.47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26.0	.51(.96)	20.2	.40(1.00)	1.04	.62
몽둥이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때렸다		14.6	.23(.62)	2.5	.03(.16)	10.62**	11.81***
심하게 구타했다		6.3	.17(.69)	2.5	.08(.47)	1.84	1.31
칼 혹은 다른 무기가 될 만한 것으로 위협했다		6.3	.15(.62)	5.0	.08(.35)	.15	1.11
칼 혹은 다른 무기가 될 만한 것으로 가해했다		4.2	.10(.59)	5.0	.05(.22)	.09	.85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29.2	.50(.94)	12.6	.31(.92)	9.11**	2.21
반대하는데도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		24.0	.50(1.06)	0.0	.00(.00)	31.93***	26.69***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데이트 폭력 피해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수준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순수 피해자 ^b	공격적 피해자 ^c	F	partial η^2	Scheffe
	(n = 262)	(n = 96)	(n = 96)	(n = 119)			
특성분노	20.18(4.66)	19.60(4.74)	22.05(5.57)	8.08***	.033	a,b/c**	
분노억제	15.82(3.72)	16.95(3.07)	17.29(4.04)	7.80***	.032	a/b*, a/c**	
분노표출	14.08(3.11)	14.09(3.05)	16.51(3.40)	26.24***	.100	a,b/c***	
분노통제	19.86(4.08)	20.46(3.75)	18.44(3.54)	8.23***	.034	a/c**, b/c***	

* $p < .05$, ** $p < .01$, *** $p < .001$.

게다가 공격적 피해자에게서는 데이트 도중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폭력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경험을 보고 한 경우가 없었던 것에 반해 순수 피해자 중에서는 24.0%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을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로 나누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과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4 참고). 분석 결

과,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와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 그리고 공격적 피해자 간에 특성 분노의 차이를 보였다, $F(2,474) = 8.08, p < .001$. 사후분석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와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특성분노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 여성보다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이 강했다, $F(2,474) = 7.80, p < .001$.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분노표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F(2,474) = 26.24, p < .001$), 분노통제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다, $F(2,474) = 8.23, p < .001$. 이런 결과는 공격적 피해자가 분노 수준이 높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이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간에는 정신병적 경향성에 차이를 보였다, $F(2,474) = 4.97, p < .05$. 사후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

했다.

중독성에 있어서도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474) = 11.44, p < .001$.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중독성이 유의하게 강했다. 이는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대처방식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의 대처방식을 탐색하게 위하여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5 참고). 분석 결과, 대처방식에 있어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특정한 대처방식에는 공격적 피해자와 순수 피해자 간에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나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덜 보였다, $F(2,474) = 7.38, p < .001$. 이는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문제중심 대처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격적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높은 정서적 표출

표 4. 데이트 폭력 피해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과 중독성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순수 피해자 ^b	공격적 피해자 ^c	F	partial η^2	Scheffe
	(n = 262)	(n = 96)	(n = 119)				
	M(SD)	M(SD)	M(SD)				
정신병적 경향성	1.91(1.82)	2.22(1.84)	2.56(2.04)	4.97**	.021	a/c**	
중독성	9.53(4.10)	10.24(3.86)	11.56(3.22)	11.44***	.046	a/c***, b/c*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데이트 폭력 피해 미경험자, 순수 피해자, 및 공격적 피해자의 대처방식의 차이

종속변인	폭력 경험	폭력 미경험 ^a	순수 피해자 ^b	공격적 피해자 ^c	F	partial η^2	Scheffe
		(n = 262)	(n = 96)	(n = 119)			
적극적 대처		4.99(1.27)	5.16(1.36)	4.55(1.13)	7.38***	.030	a,b/c**
정서적 표출		4.97(2.09)	5.15(2.60)	5.76(2.25)	5.07**	.021	a/c**
적극적 망각		4.92(2.07)	5.34(2.25)	5.79(2.27)	6.98**	.029	a/c**
자제		2.49(1.85)	2.85(1.56)	2.58(1.12)	2.48	.010	
고집		4.05(1.85)	4.71(2.13)	3.98(2.14)	4.54*	.019	a,c/b*
긍정적 해석		7.27(2.58)	7.21(2.55)	7.18(2.07)	.06	.000	
긍정적 비교		4.38(2.15)	4.32(2.07)	4.95(2.17)	3.38*	.014	
양보		4.18(1.58)	4.34(1.57)	4.13(1.53)	.57	.002	
체념		2.58(1.58)	2.90(1.76)	3.06(1.73)	3.88*	.016	a/c*
자기비판		5.25(1.95)	5.95(2.22)	5.34(1.87)	4.43*	.018	a/b*
정서적 진정		7.50(2.49)	7.41(2.32)	7.70(2.11)	.46	.002	
정서적 지원 추구		7.78(2.57)	7.88(2.21)	7.93(2.53)	.16	.001	
종교적 추구		5.03(3.67)	6.15(4.03)	4.11(3.58)	7.94***	.032	a/b*, b/c***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을 보였고 문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잊으려는 성향이 강했으며 체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는 공격적 피해자나 폭력 미경험자보다 무엇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했으며($F(2,474) = 4.54, p < .05$), 폭력 미경험자보다 자기비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74) = 4.43, p < .001$. 또한 순수 피해자는 공격적 피해자나 폭력 미경험자보다 종교적 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의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 대처방식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여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가 공격적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

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그 이유는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를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보고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만을 보고한 여성들을 순수 피해여성으로 하고 가해와 피해를 모두 보고한 경우를 모두 공격적 피해자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사용한 경우를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피해자들은 너무 심한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피해자가 순수 피해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피해 수준이 높은 것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정 소송을 했을 때 자신에게 폭력의 빌미를 제공하였는지를 취조하는 듯이 묻는 것이 불쾌했다고 상담 혹은 면접 중에 연구자에게 토로하는 여성들이 꽤 있었다. 먼저 폭력을 가해하여 데이트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공격적 피해자가 주위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Schwartz, 2000), 자신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Witte et al., 2006). 본 연구의 경우 데이트 폭력 순수 피해자보다 공격적 피해자가 많았는데, 데이트 도중 생긴 갈등을 해결하려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였을 때 상대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그렇게 입은 피해는 주위로부터 인정받기 힘들 뿐더러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 공격적 피해자보다 순수

피해자가 성폭력을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남성이 폭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은 성적인 행동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길이다. 물리적 힘까지 써가며 단호하게 그 성폭력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모습이 성폭력 가해 의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서경현과 이경순(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피해자와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 특성분노 수준은 순수 피해자가 가장 낮고 공격적 피해자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에도 공격적 피해자가 높은 분노 수준을 보이고 순수피해자는 낮은 분노 수준을 보인 것은 데이트 폭력 피해가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높은 분노 수준이 먼저 폭력을 행하게 하여 상대의 폭력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암시한다.

공격적 피해자는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면서 통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피해자들은 높은 자신의 분노 수준을 그대로 데이트 상대에게 보이고 더 나아가 물리적 힘으로 가해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분노표현은 다른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 순수 피해자는 분노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상대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 더 심각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수 있다. 서양에는 데이트 폭

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Weisz & Black, 2001). 그런데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노관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격적 피해자의 경우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시켜야 재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했다. 이는 공격적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서경현, 이경순, 2002; Felix & McMahon, 2006)를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한 것이라기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먼저 행하여 상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신병적 경향성이 학대받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는 주장(Vitanzo et al., 1995)도 있지만, 순수 피해자의 경우 데이트 폭력 미경험자보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서경현, 이경순, 2002; Gavazzi et al., 1996; Malamuth, 1986)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남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있고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혹은 피해와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도중 신체적 공격을 먼저 한 공격적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Eysenck 성격검사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은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한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이입이 안 되는 등 대인 능력이 떨어지면 데이트 상대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공격적이라면 갈등을 해결할 책략으로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만 상대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의 중독성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일련의 선행연구들(서경현, 이경순, 2002; Henton et al., 1983; Nicarty, 1991; Norwood, 1985; Pearson, 1991)과 일관된 것이다. 순수 피해자의 중독성도 강했지만 폭력 미경험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arkow와 Nelson(2000)은 중독성이 강한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힘든 세상의 피신처로 생각하며 이성을 사귀는 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철회하고 상대방에 너무 의존하는 습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공격적 피해자들은 상대를 소유하고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폭력을 사용했을 수 있다.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관계에 더 개입되어 있었는데, 특히 공격적 피해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그 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공격적 피해여성이 관계에 더 개입하고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데이트 상대 혹은 관계에 대한 집착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그 관계에 구속되는 것, 즉 관계에 중독될 수도 있다(Halpern, 1994). 관계에 중독이 잘 되는 여성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Pearson, 1991). 따라서 공격적 피해자들이 먼저 상대에게 신체적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Norwood(1985)와 Pearson(1991)은 관계에 중독되는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친밀한 사회관계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격적 피해자의 중독성이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환경에서 폭력을 갈등해결 방법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사람들은 약물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독성과 데이트 폭력 가해 혹은 피해 간의 관계에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경현, 2003). 따라서 중독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데이트 도중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 이런 관계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CDC, 2003)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강조한다. Shannon 등(2006)은 주위의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도움을 청할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진다(Holt & Espelage, 2007). 하지만 공격적 피해자들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Felix & McMahon, 2006), 그런 사회적 지원을 덜 받을 수 있고 그런 지원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정서 중심적인 대처가 모두 하위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적 대처와 사회적 대처, 그리고 종교적 대처로 구분하는 다차원 대처척도(전경구 외, 1994)를 사용하여 공격적 피해자의 대처방식이 데이트 폭력 미

경험자나 순수 피해자와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처 중에 정서적 지원추구에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공격적 피해자들은 타인과 긍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격적 피해자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위로받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공격적 피해자의 개인적인 대처 차원에서 특이점들이 발견되었다. 공격적 피해자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체념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기분을 겉으로 표출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정서 표출의 경우는 데이트 상대에게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체념에 버리려는 성향은 공격적 피해 경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순수 피해자가 자기비판을 많이 하고 강한 종교적 추구 성향을 보였다. 순수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 힘 혹은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는 듯하다. 아니면 비폭력을 강조하는 종교인의 특성일 수 있다. 또한 순수 피해자는 고집, 즉 변하지 않고 한 가지를 계속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런 성향이 폭력적 상대에게 순응하고 의존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데이트 폭력 전문가들은 데이트 도중 폭력의 기미가 보이거나 약한 수준이라도 폭력을 당하면 그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순수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여 폭력의 장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으며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에 관한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정신병적 경향성에서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자와 폭력 미경험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런 차이가 임상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특성으로 검증된 변인들에 있어서 순수 피해자나 폭력 미경험자와 차이가 있는지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여러 변인들 간에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순수 피해와 공격적 피해로 나누어 그 특징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여성의 재활을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정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중효, Essex, M. J. (2002). 공격적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발표집, 167-172.
 서경현 (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서경현(2003).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61-78.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관계에서의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147-162.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서경현, 안귀여루(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77-95.
 서경현, 이경순(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679-695.
 이현수 (1997). 아이젠크 성격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전검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14-135.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Carlson, B. E. (1997). A stress and coping approach to intervention with abused women. *Family Relations, 46*, 291-298.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3). Cos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United States. Atlanta (GA): CDC,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ited 2005 September 15]. Available from: URL: www.cdc.gov/ncipc/pub-res/ipv_cost/ipv.htm.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raig, W. M., Pepler, D., Connolly, J., & Henderson, K. (2001). Developmental context of peer harassment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uberty and the peer group.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242 - 261). New York: Guilford Press.
- Crandall, M., Nathens, A. B., Kernic, M. A., Holt, V. L., & Rivara, F. P. (2004). Predicting future injury among women in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Trauma-Injury Infection and Critical Care, 56*, 906-912.
- Dutton, D., & Painter, S. (1981). Traumatic bo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ttachments in battered women and other relationships of intermittent abuse. *Victimology, 6*, 139-15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arnham, F. R., James, D. V., & Cantrell, P. (2000).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psychosis, and relationship to victim in stalkers. *Lancet, 355*, 199.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00). Crime in the United States, 1999. Uniform crime repor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Felix, E. D., & McMahon, S. D. (2006). Gender and Multiple Forms of Peer Victimization: How Do They Influence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 707-724.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Gavazzi, S. M., Julian, T. W., & McKenry, P. C. (1996). Utilization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to discrimin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male relationship partners. *Psychological Reports, 79*, 1047-1056.
- Gondolf, E. W. (2002). Service barriers for

- battered women with male partners in batterer progra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217-227.
- Gondolf, E. W., Fisher, E., & McFerron, J. R. (1990). The help-seeking behavior of behavior of battered women: An analysis of 6,000 shelter interviews. In E. C. Viano (Ed.), *The victimology handbook: Research findings, treatment, and policy*. New York: Garland.
- Halpern, H. M. (1994). *Finally Getting It Right*. New York: NY: Bantam Books.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olt, M. K., & Espelage, D. L. (2007).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984-994.
- Howard, D. E., & Wang, M. Q. (2003). Risk profiles of adolescent girls who wer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dolescence*, 38, 1-14.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53-962.
- Murphy, W. D., Coleman, E. M., & Haynes, M. R. (1986). Factors related to coercive sexual behavior in a nonclinical sample of males. *Violence and Victims*, 1, 255-278.
- Neufeld, J., Mcnamara, J. R., & Ertl, M. (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125-137.
- Nicarthy, G. (1991). Addictive love and abuse: A course for teenage women in love. In B, Levy (Ed.),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pp. 240-257). Seattle, WA: The Seal Press.
- Norwood, R. (1985). *Women who love too much: When you keep wishing and hoping he'll change*. New York: Pocket Books.
- Pearson, J. (1991). Relationship dependent women: Their views on symptoms and recovery. *Virginia Counselors Journal*, 19, 3-13.
- Ramisetty-Mikler, S., Goebert, D., Nishimura, S., & Caetano, R. (2006).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ssociated Drinking and Sexual Risk Behaviors of Asian, Native Hawaiian, and Caucasian High School Students in Hawaii.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6, 423-429.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 - 1772.
- Shannon, L., Logan, T. K., Cole, J., & Medley, K. (2006). Help-seeking and coping strategie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rural and urban women. *Violence and Victims*, 21,

- 167-181.
- Silver, M. E., Field, T. M., Sanders, C. E., & Diego, M. (2000). Angry adolescents who worry about becoming violent. *Adolescence*, 35, 663-669.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ullivan, C. M., & Bybee, D. I. (1999). Reducing violence using community-based advocacy for women with abusive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43-53.
- Swanson, J., Estroff, S., Swartz, M., Borum, R., Lachicotte, W., Zimmer, C., & Wagner, R. (1997). Violence and severe mental disorder in clinical and community populations: the effects of psychotic symptoms, comorbidity, and lack of treatment. *Psychiatry*, 60, 1-22.
- Tjaden, P., & Thoennes, N. (2000).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 Vitanza, S., Vogel, L. C., & Marshall, L. 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 23-34.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 89-101.
- Witte, T. H., Schroeder, D. A., & Lohr J. M. (2006). Blame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 647-668.

투 고 일 : 2008. 03. 13.
1 차심사일 : 2008. 04. 03.
계재확정일 : 2008. 04. 30.

Anger, Anger Expression, Psychoticism, Addiction, and Coping among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ger and its expression, psychoticism, addiction, and coping styles of victims, especially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dating violence and rehabilitation of victims. The participants were 477 female college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 of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whose ages ranged from 17 to 29 ($M=20.59$, $SD=1.44$).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Spielberger'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and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Results revealed that victims only were more likely to receive violence as well as sexual harassments from their dating partners than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showed higher level of trait anger and anger-out, and difficulty in control their anger than victim only and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In addition, they also revealed symptoms of psychoticism and addiction. And aggressive victims of dating violence showed less active coping and more active forgetting and renunciation than victims only and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dating violence. Victims only of dating violence more like to criticize themselves and pursue religious coping than aggressive victims. Researcher discussed these results with previous studies.

Key words : dating violence, aggressive victims, anger, psychoticism, addiction, coping